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정착 방안에 관한 국제컨퍼런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8년 4월 30일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정착 방안’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입학사정관제도의 본원지인 미국의 대규모 대학과 중소규모 대학의 다양한 입학사정관 운영 현황을 소개함은 물론, 입학사정관제도의 국내 정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측면의 요소들을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미국 대학입학사정관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어온 UC버클리 입학처 부처장인 Anne De Luca 박사와 전미입학사정관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for College Admission Counseling: NACAC)의 Kimberly Johnston 회장이 미국 내 대학의 입학사정관 운영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국내 입학사정관제 정착 모델에 대하여 성균관대 김현철 교수가 발표를 하였다. 이러한 주제발표에 대해 세 분의 국내 대학 교수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대학입학관계자, 언론관계자 등 185명이 참석하여 국내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정착 방안에 대하여 열띤 논의의 장이 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정완용 입학처장(경희대)의 사회로 미국대학의 학생평가 방법 및 사례에 관해서 Luca 입학처 부처장의 발표로 UC버클리 입학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였다. UCB의 입학정책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목표가 바로 학업능력이 우수하면서도 개인적 측면에서 우수한 재능을 지니고 있고, 그러면서도 캘리포니아 주의 문화, 인종, 지역, 사회경제적 배경 면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선

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UCB가 소재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도 1998년부터 Proposition 209에 의해 더 이상 소수인종을 직접적으로 우대하는 방식은 금지되어 적극적 차별조치의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UC버클리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매년 11월 1일~30일 까지 1년에 1회 지원하게 되고, 모든 신입생들은 3월 마지막 토요일에 합격 여부가 판정되며, 4월 30일 편입생 입학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지원서는 가정환경, SAT, ACT 등의 시험 성적, 수상 경력, 과외활동, 지도자 역할 및 봉사활동,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대한 참석 여부를 기재하고, 총 1,000자에 해당하는 2종류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UC버클리 지원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된 후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즉, 학업성취도, 업적, 기회, 도전과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평가 시 수치가 아닌 학생들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맥락적인 것을 고려하여 평가한다는 것이다.

특정 지원서의 경우 신체장애나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학업성취도가 낮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혹시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 등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Luca 부처장은 설명했다. 버클리대 입학률을 따져볼 때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고교를 졸업한 지원자는 입학률도 그에 맞게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

110명의 UCB 입학사정관이 2008년 가을학기 전형에서 12월부터 3월까지 4만8천여 장의 지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 채점하고, 평가점수가 평가자 간에 1점 이



상 차이가 나면 12명의 선임 사정관에게 제출해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8년 가을학기에서 1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5% 미만일 정도로 신뢰롭고 공정하다는 것을 Luca 부처장은 강조하였다.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매년 8월에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2월 사이 매주 입학사정관을 위한 각종 학술대회 및 연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입학사정관의 자격요건은 입학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고, 다른 입학위원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고, 학생들과 여러 방면에 의사소통을 잘 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으며, 많은 양의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3000개의 지원서를 읽는) 사람이어야 하고, 업무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으며, 조직력과 끈끈함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 학생의 가정 상황에 맞게 입학절차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고객중심의 서비스 기술과 컴퓨터 능력도 있어야 하고, 출장과 추가 근무가 가능한 사람, 또한 업무가 기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채용 시 범죄자 신용조회 실시를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Luca 부처장의 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양성관 교수(건국대)는 UC 버클리의 입학결정과 입학관련 조직에 관하여 우리의 경우 대학입학사정관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대학에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입학결정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새롭게 채용된 입학사정관의 교육 및 직무기준, 윤리강령과 같은 입학사정관 인

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공교육이 인종과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미국)이나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과 지역(한국) 차이에 따른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인종과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 가운데 하나가 UCB 사회학과 교수인 Jerome Karabel(2005)이 지은 '선택받은 학생(The Chosen)'을 소개하였다. Karabel은 미국의 대입제도의 특징을 '자유재량'과 '불투명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자유재량(discretion)이라 함은 입학담당자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투명성(opacity)이라 함은 이 속사정은 일반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는 특정 인종을 선택하거나 배제하는데 작동하거나, 사회경제적 배경이 어려운 학생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더 유리한 위치의 학생들을 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혔다. 양성관 교수는 Luca 부처장의 '공정성에 대한 배려'라는 발표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금전적 영향이나 정치적 영향 및 기타 영향력이 대학의 입학결정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문흥안 입학처장(건국대)의 사회로 전미입학사정관협의회(NACAC) 회장인 Kimberly Johnston 박사가 미국의 대학입학 전형제도와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대학입학전형에서는 대학입학을 위한 필수교과목의 성적, 학생들이 이수한 교과목의 특징, 표준화된 대입시험 성적, 전 과목 평균성적, 에세이, 지원 대학에 대한 관심, 교사 추천서, 면접 등이 고려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인종, 성, 학부모의 특성, 출신 고등학교, 거주 지역, 가족의 동문 여부 등의 제반 특성은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배경적 요소로 고려되고, 전형요소의 활용 방법은 대학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Johnston 회장은 입학사정의 과정이 과학적 분석을 초월한 예술적 판단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만큼 종합적인 판단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입학전형제도에서 학생은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은 경쟁률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데 조기 입학 확정제, 조기 전형제, 그리고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으나 여전히 입학가능성 있는 대기 리스트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Johnston 회장은 대학 지원자가 본인에 대해 당락을 결정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입시과정에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며, 불합격 통지서에 입학사정관 이름은 물론 연락처까지 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학사정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는 신입 직원의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승진을 하고 이 분야의 전문적 경력을 위해서는 석사, 박사 등을 요구하게 되며, 또한 연수는 NACAC와 같은 전문 기관이나 여러 교육기관들이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NACAC는 윤리 지침서가 있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NACAC 윤리강령'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며 이것을 토대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대학입학 및 관련 업무 윤리 규범을 확립하기 위해 1937년 중서부 주에서 시작하여 고등교육기관을 비롯한 대학교수, 중등교원, 교육관련 구성원들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의 입학행정 담당자, 학생들에게도 대학 입학 및 진학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Johnston 회장의 발표에 토론으로 나선 황규호 교수(이화여대)는 한국사회에서의 대입제도 관련 쟁점과 그러한 쟁점이 제기되는 한국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면서 미국 입학전형제도 및 입학사정관제의 특징들이 한국의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선과 입학사정관 제도 운영에 주는데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업성취도 평가에서의 종합적 평가의 필요성으로, 대학입학 전형에서 학업성취도는 중요한 전형요소로 활용하되, 학업성취도 및 학업능력의 평가에 있어서는 정량적 자료에 기초한 기계적 산출의 방법을 넘어서서 각종 관련 자료들에 대한 정성적 해석에 기초한 종합평가의 방

법이 함께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학생부 성적과 국가시험 성적의 균형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진 평가결과로서의 학생부성적은 지원자의 학업능력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계적인 성적 산출 방법을 지양하고 각 대학별로 입시자료의 통계분석 등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그 활용방안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상업주의의 문제 극복을 위한 과제로, 대학 입학을 위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상업주의'의 침투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한편으로는 사설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대학들이 입학전형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상세한 정보의 제공이 오히려 전형제도의 틈새 공략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야기되는 딜레마적 상황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째, 대학입학사정관 제도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한 과제로, 대학입학사정관의 도입에 있어서 미국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됨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 제도가 한국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의 교육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며, 입학사정관의 직업 불안정성은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황규호 교수는 대학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무엇보다 대학입학전형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능력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적 특성을 통해 평가해야만 하는 '평가의 근본 한계'가 야기하는 문제와 '공정한 분배'와 관련된 온갖 정치적·철학적 문제가 동시에 작용을 하는 지점이라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 김태한 입학관리본부장(경북대)의 사회로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을 위한 모델이란 주제로 김현철 교수(성균관대)가 발표하였다.

김현철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사정관제 정착 방안을 위해 첫째,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범운영과 점진적 도입으로 향후 2-3년 동안 입학사정관제를 시범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공정성과 대학의 학생 선발권간의 갈등을 절충하여 이의 효과적인 시행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둘째, 행·재정적 지원으로 입학사정관제의 시범운영을 위해서는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대학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이의 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를 시범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부 입학전형 대해에서만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의 실시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개별 대학별로, 혹은 시범실시 대학 외부에 입학사정관제 연구팀을 구성하여 향후 입학사정관제의 전면적 도입 과정에 그 연구결과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의 시범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입학사정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시범실시와 함께 진행되는 연구의 연구비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환류(feedback) 장치의 구축으로 향후 입학사정관제는 입학사정관의 기능을 학생 선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여러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택된 학생들의 입학 이후의 학업성취도나 학교생활 만족도, 졸업율, 졸업시기 등의 관련 정보가 입학사정관에게 피드백 되도록 하여 입학사정관의 학생선발 기준이나 전형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최신화(update)와 최적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주장했다. 넷째, 다양한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대학들 중에서도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대학, 대규모 대학과 중소 규모 대학, 그리고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간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여건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각 대학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하고 특성 있는 입학사정관제

모델이 개발·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각 대학의 특성에 적합한 여러 입학사정관제 모델이 다각도로 탐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섯째, 대학별 학생선발 기준 확립을 위하여 지적 능력, 예체능, 봉사정신, 리더십, 현재의 능력 vs 잠재력, 지적 우수성 vs 배움에 대한 열정, 자질, 태도, 대학/전공 선택과정은 학생이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학/전공을 찾는 과정(승리의 쟁취 vs 배움의 열정) 등을 강조하였다.

김현철 교수의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을 위한 모델 발표에 토론자로 나선 김무봉 교수(동국대)는 대학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이 각 대학의 건학이념이나 인재양성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며, 우리나라 대학의 입시 환경을 바꾸면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우리 교육의 여건이나 대학입시에 대해 사회 일반에 형성되어 있는 암묵적 인식, 우리나라 특유의 교육에 대한 열정 등 여건에 따른 변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종합적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하여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국내 고등교육 관계자와 학생, 학부모 및 고교교사들의 이해 폭을 확대하고,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준비하는 대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제도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정책연구, 해외사례 벤치마킹, 입학사정관 연수 등의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정리_김정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사지원부